

근세 일본 여성의 신분별 두발형태와 조형성에 관한 연구*

박옥련**
ylpark@ks.ac.kr

<目次>

- | | |
|----------------------|--------------------|
| 1. 서론 | 3.1 공가(公家)와 무가(武家) |
| 2. 이론적 배경 | 3.2 여관(女官) |
| 2.1 에도시대 신분제도 | 3.3 유녀(遊女) |
| 2.2 에도시대 조형의 특성 | 3.4 초닌(町人) |
| 3. 신분별 두발형태에 나타난 조형성 | 4. 결론 |

主題語: 에도(Edo), 신분(status), 두발형태(Hair style), 조형성(Formativeness), 올림 머리(Up style)

1. 서론

에도시대(江戸時代)에는 신분제 사회였으나 무가(武家)나 공가(公家)의 여성들은 귀족으로서의 높은 신분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을 꾸미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반면 유녀(遊女)나 초닌(町人) 신분의 여성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화장 및 두발형태(頭髮形態)를 특권계층과 같이 모방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경제력을 가진 서민들은 우키요에(浮世繪), 가부키(歌舞伎)와 같이 그들만의 독특한 서민문화를 즐겼고, 오히려 지배계층인 공가나 무가계층의 여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두발형태는 귀족의 수발(垂髮)양식과 일반 여성의 업스타일 형태로 양분화 되어 있었다.

수발양식의 경우 헤이안시대(平安時代)부터 내려온 귀족의 예장용 두발형태로, 모모야마시대까지 대부분의 여성들은 수발형태였고, 상황이나 신분에 의해 두발을 구별했던 것은 에도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인 권력이 공가에서 무가로 넘어오면서 긴 머리를 늘어뜨렸던 귀족 여성들의 머리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가 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야했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2011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이를 위해 나타난 것이 업스타일로 시대가 갈수록 점차 크고 화려해졌으며 에도시대 여성들은 마게(鬘)의 높이, 크기, 장신구의 종류를 달리해 신분과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전기에는 다보(髷)의 후두부 머리 다발을 정수리로 올려 빗어 묶은 후 빈(髻)의 양쪽에 걸친 머리 다발을 사선으로 비스듬히 빗겨 후두부 머리 다발 위로 함께 묶었다. 중기에는 후두부에 있는 머리다발인 다보가 두상에 달라붙듯이 빗질되어 있고 옆머리인 빈(髻)에 부피감을 주어 목덜미와 어깨선에서 드러나는 곡선과 조화되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조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여성의 두발에 관한 선행연구¹⁾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른 형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조형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없었다. 따라서 두발형태에서 나타나는 미적특성과 상징성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도시대 여성의 신분을 공가와 무가, 여관, 유녀, 일반서민인 초닌으로 나누고 이들 신분별 여성의 두발형태와 조형성을 형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에도시대 신분 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세워진 에도 막부의 정치 체제는 장군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제국의 영주를 지배하는 중앙 집권적 봉건제도였다. 막부의 직할지는 전국의 4분의 1에 해당하여 정치상 주요한 토지와 상공업이 융성한 토지 등을 모두 수중에 넣어 그 조세는 800만석이 나 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비하여, 지방 영주 중에서 가장 조세가 많았던 가가(加賀)의 마에다가(前田家)도 102만여 석에 불과하여 그 세력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³⁾ 또한 영주들의 세력증강을 억제하는 여러 정책을 펴 막부는 천하에 군림하는 확고한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무사라도 상하 신분의 구분이 엄격하였고 여성들 또한 상급 무사부인과 하급무사의 부인의 옷차림이나 머리스타일은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1) 김민경(2009) 「정조시대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화장문화(化粧文化)와 수발문화(鬢髮文化)의 비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8 No.1

2)鈴木昌子(1993) 「江戸時代の髪形：髪形の変遷にみられる日本人の美意識」 『山野研究紀要』 1(1), pp.11-17

3) 김문길(1998) 『일본 역사와 문화』 형설출판사, p.200

이러한 봉건제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공가, 무가, 농공상의 서민계급의 확립과 그 신분을 고정시키고 보존 유지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각각 신분 중에서는 다시 몇 개의 계층으로 분화되었다. 무사사회에서도 상하의 차이가 있었고, 농민도 촌장과 일반농민과의 차가 있었다. 상인도 큰 상가라면 주인, 지배인, 점원의 차이가 있었고, 직인이라도 우두머리와 제자의 구별은 엄연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하의 구분은 자기 신분과 지위에 적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사상이 뒷받침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상은 복식이나 화장, 두발형태에도 반영되어 신분에 따른 복장의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겐와(元和) 원년(1615)에 제정된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에는 이러한 신분에 따른 꾸밈의 엄격한 제한이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생활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꾸밈을 것을 통하여 신분제에 의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막부의 의도를 잘 나타낸 것이었지만 이것이 되풀이 되어 검약령, 사치 금지령이라는 형식으로 몇 번이나 발표되었던 사실을 보면 그러한 제한이 표면상으로는 어찌되었던 내용적으로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⁴⁾

특히 화폐경제의 발달로 경제력을 가진 상인층에서는 그들의 에너지를 오직 남자는 유곽, 여자는 의상, 가부키와 같은 소비생활로 발산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상인들의 부인은 이러한 법령과는 관계없이 막대한 경제력으로 머리스타일이나 의복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에도시대 유곽으로 유명했던 요시와라의 유녀들의 신분은 다유(茶遊), 화려한 의상과 머리 치장을 한 고급유녀인 오이랑(花魁⁵⁾), 오이랑의 사사로운 일을 도와주는 유녀인 신쵸(新造⁶⁾), 고급유녀의 시중을 드는 가무료(禿)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에도시대 최고의 유녀인 오이랑을 만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고급 유녀들은 전통적으로 귀족에게 부여되었던 많은 덕성을 갖춘 존재들이었으며, 이들은 음악, 시, 그림, 서예 그리고 다른 예능들을 습득해야만 했다. 매력적이고 유능한 유녀들은 당시 일반인들의 교양과 의상 그리고 머리 모양에도 영향을 주었다.

4) 小池三枝(1989) 『日本服飾史』光生館, p.122

5) 요시와라(吉原)의 상급유녀의 존칭,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요시와라의 독특한 명칭으로 교양이 높은 유녀를 상징한다.

6) 오이랑 밑에서 시중을 들고, 기녀 수업을 받은 10세 전후의 여자아이를 칭하는 말이다. 15, 6세가 되어야 정식 유녀가 되어 손님들 맞게 되어 있다.

2.2 에도시대 조형의 특성

근세 일본의 복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조형성의 개념은 미적 범주의 개념에서 다테미와 이키미로 구분할 수 있다.

2.2.1 다테미(伊達美)

에도시대 복식의 경우 경풍(京風), 상방풍(上方風), 무가풍(武家風)으로 남보다 뛰어난 노력이 깃들었으며, 기발한 발상으로 여러 가지 머리형태를 창조해 댐으로써 머리형태를 더욱 화려하게 하여 사람의 눈을 끄는 기법으로 다테(伊達)미가 있었다.

복식에서 다테는 화려하게 사람의 눈을 끄는 방향에서 미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데 있었다. 에도시대 시민생활의 경제적인 만족은 이와 같은 복식의 다테적인 화려함을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무가나 공가가 아니라도 일반 시민들 중 부유한 사람은 이러한 다채롭고 호화로운 것을 추구하였다. 노시(熨斗)문양의 후리소데(振袖)는 다테미가 표현된 대표적인 것으로 길상적인 문양을 크게 의복의 전면에 배치한 의장이다. 홀치기와 자수, 유젠조메와 에도시대 중기의 염직기술과 기교가 종합된 전성기의 작품이다. 이러한 종류의 화려한 유품은 일반 부유층들의 복식에 대한 이상을 표현하였다.⁷⁾

두발에 있어서는 에도초기 수발형태인 사게가미를 들 수 있는데, 이전까지의 수발형태와 달리 앞머리를 짧게 자르고 옆머리를 내어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태이다. 부유층의 복식에 표현된 다테의 미감은 남보다 뛰어난 노력이 깃든 세세한 부분까지 화려하게 표현한 결과이며, 취재도 기발하고 표현의 기법상으로도 화려하여 사람의 눈을 끄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었다.

2.2.2 이키미(粹美)

에도시대 후기에 이르러 새롭게 나타난 유행으로 시민풍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정통적인 경풍, 상방풍에 대한 신풍(新風)이며 에도풍이었다. 특히 에도풍 중에서도 무가풍(武家風)에 대한 시민풍이며, 시민풍 중에서도 무가풍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시민풍이었다. 이키미는 시민문화가 성숙했다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이키미의 영향에 의해 색채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었던 화려하고 다채로운 배합의 효과를

7) 조규화·이희승(2004) 『복식미학』수학사, p.566

단색 혹은 여기에 가까운 색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색조를 만들어내어 다채로운 에도의 색채를 만들어 내었다.

이키색에 대한 태도는 전 시대의 화려한 색채가 아니라 하나한의 색상에 복잡한 톤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때 기조가 된 것은 쥐색, 다색, 남색 등 아주 침착한 색으로 여기에 화려한 색채를 약간 가미시켜 깊은 맛이 있는 색을 만들었다.

또한 종래의 복잡하게 정성을 들인 의장을 표현한 문양이 있는 의상에 비해 줄무늬와 같은 단순한 문양이 유행해 새로운 분위기의 상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이키미의 추구는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워진 에도시대 여성의 두발형태를 간소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키의 취향의 배경은 에도시대의 화류계, 가부키와 관련을 갖고 이들 세계에서 나타났다. 당시 화류계는 시민들의 문화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가, 공가의 남성들이 드나드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세계에서는 그들에게 요구된 향(香), 화(花), 다도(茶道)와 같은 고전적인 교양도 새로운 예능과 함께 하나의 미적문화를 형성하려고 하였다.⁸⁾



<그림 1> 다테미의 복식과 두발



<그림 2> 이키미의 복식과 두발

<그림 1>은 에도시대 전기 다테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사계가미를 하여 자른 옆머리와 화려한 문양과 색감의 고소데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

<그림 2>는 에도시대 후기 미적 특성인 이키미가 잘 드러나는 그림이다. 단순해진 마게와 간색(間色)인 소라색 모토유이와 특별한 기법 없이 톤의 변화로만 문양을 나타낸 네즈미이로

8) 상계서, 조규화 『복식미학』, p.568

(鼠色)의 고소테에서 이키미를 엿볼 수 있다.

3. 근세 일본 여성의 신분별 두발형태와 조형성

3.1 공가와 무가

에도시대 무가나 공가의 여성은 귀족 신분의 여성으로 머리 형태는 의례용과 일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례용 두발형태인 오스베라카시는 부분적으로 변화하면서 에도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긴 머리가 번거로울 때는 고우가이(笄)에 머리카락을 감아 돌려서 일시적으로 마게에 묶었던 것이 에도시대 고우가이마게(笄鬘)의 기원이 되었다.

예장용 의복인 주니히토에(十二單)를 갖추는 때 입는 머리 형태로 여러 겹 겹쳐 입어 부피감과 무게감을 주는 의복에 비하여 간소한 형태이다. 정면에서 보면 윗부분이 넓은 역삼각형 형태로 위로 세운 사이시(鋌)와 히라비타이(平額)를 꽂고 뒤로 늘어뜨리는 형태로 장신구와 늘어뜨린 머리에 의해 수직적인 확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면에서 보면 역삼각형 형태의 대칭균형을 이루어 수평적인 확장으로 과장된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 조형되어 안정감과 의례적인 느낌으로 주고, 장신구와 스이하츠에 의해 귀족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사게가미(下髪)는 의례용으로 게이쵸우(慶長) 고소테(小袖)와 함께 게이쵸우 시대 공가 여성의 대표적인 수발양식으로 특별한 장식 없이 모토유이(元結)로 묶어 화려한 의복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형태이다. 그러나 기발하고 독특한 머리 형태의 표현이 복식의 화려함과 어우러져 다테미를 풍기고 있다. 오스베라카시와 유사한 수직적 아름다움을 강조하였고, 옆머리를 어깨까지 짧게 잘라서 얼굴 부위를 강조하였고, 사게가미를 통해 신분의 상징성을 볼 수 있다.

에도 초기 수발형태에서 엽스타일로 변해하는 여성 두발형태의 과도기 역할을 하며 귀족계급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즈부이치는 시마다마게(島田鬘)의 일종으로 막부시대 부터 메이지(明治)에 걸쳐 여성들에게 유행한 엽스타일 형태이다. 20세 전후 공가 여성의 머리형으로 앞머리를 조금 부풀려 빗으로 고정하고, 마게를 둥글게 올려 붙여 전체 두발형태에 부피감을 강조하였다. 초기에 유행하던 다보는 사라지고, 두발형태에 리듬감을 주어 공가의 미혼 여성의 활동성 강조하였으

며, 장신구로 간단한 히라우치간자시(平打簪)를 꽂고 있는 모습에서 미혼여성의 활동성과 귀족여성의 품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게와 다보의 조화를 통한 리듬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스타일이다.

가타하즈시는 예장용 머리형과 일상적인 머리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임시성의 두발형태로 필요에 따라 고우가이를 빼어 쉽게 수발(垂髮)형태로 돌아갈 수 있어 변화를 전제로 한 얇고 편평한 다보와 느슨하게 묶은 마게는 귀족 여성의 활동성과 위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체를 넣어 부풀린 머리는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확장적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표현된 부피감은 귀족여성의 품위를 나타낸다. 장신구로 사용된 붉은 가노코(鹿子)와 간자시(簪)는 기혼녀가 되기 전 신분을 강조하는 효과와 함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발과 업스타일을 동시에 표현하여 예를 지켜야 할 상황에서는 위엄을, 평상시에는 활동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에도시대 여성의 두발형태의 조형적인 특징을 신분별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무가와 공가 두발형태의 조형성

무가와 공가		
두발양식	형태 및 조형성	상징성
	 -오스베라카시, 의례용 -예장용 의복인 주니히토에(十二單)와 함께하는 두발 형태 -정면에서 보면 윗부분이 넓은 역삼각형형태로 만들어 위로 세운 사이시(釵)와 히라비타이(平額)를 꽂고 뒤로 늘어뜨리는 형태 -일정한 형식에 의해 조형됨 -수평적 확장으로 과장된 형태 -정면에서 보면 역삼각형 형태의 대칭균형을 이루어 안정감과 의례적인 느낌을 줌	장신구와 스이하즈에 의해 권위와 위엄이 나타남
	 -사게가미(下髮), 의례용 -게이쵸우(慶長) 고소데(小袖)와 함께 게이쵸우의 공가 여성의 머리 -수발계(垂髮系) 형태로 장식 없이 모토유이(元結)로 묶음 -수직적으로 강조 -옆머리를 어깨까지 짧게 잘라서 얼굴 부위를 강조하여 귀족 계급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함 -기발한 취재와 표현의 기법이 보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다테 취향이 엿보임	사게가미를 통한 신분상징 옆머리를 자른 기발한 취재의 다테미

		-즈부이치 -시마다마게의 일종 막부부터 메이지에 걸쳐 유행, 공가의 20세 전후의 딸의 머리형 -앞머리를 조금 부풀려 빗으로 고정하고, 마개를 둥글게 만들고, 다보는 사라진 형태 -머리 형태에 리듬감을 주어 공가의 미혼 여성의 활동성 강조	업스타일의 활동성이 잘 표현되고 마개와 다보의 조화를 통한 리듬감
		-가타하즈시 -필요에 따라 고우가이를 빼어 쉽게 수발로 돌아갈 수 있는 머리형 -변화를 전제로 한 얇고 편평한 다보와 느슨하게 묶은 마개	수발과 업스타일을 동시에 표현하여 위엄, 활동성 함께 나타남
		-즈부이치 -공가의 딸의 머리형 -마개를 높고 둥글게 올려 붙이고, 간단한 히라우치 간자시를 꽂고 있는 모습에서 젊은 미혼여성의 활동성과 귀족 여성의 품위를 나타냄	마개를 통한 신분상징
		-온오시도오리 -유이와타에 가체를 넣은 것으로 딸이 약혼한 후 했던 형태 -가체를 넣어 부를린 머리는 귀족여성의 품위를 나타내고, 붉은 가노코와 간자시는 강조의 효과와 함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나이상징

3.2 여관(女官)

여관(女官)은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궁녀와 비슷한 의미이다. 궁중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궁중의 예장용 머리인 수발(垂髮)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가나 무가계급 여성들의 화려한 올림머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우가이마개는 궁중여관들이 사계가미를 고우가이로 말아 올린 것으로 길게 늘어진 다보와 간단하게 말아올린 마개에서 균형감이 보인다. 공가나 무가의 두발형태에서 나타난 가타하즈시처럼 의례용 머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스타일로 임시성의 머리 형태이다.

초기에는 고우가이 하나로 이루어진 간소한 장식과, 신분의 위엄성을 상징하는 긴 다보가 수직적인 강조의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단순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기 이후 나타난

변용형은 다보가 짧아지고 마게의 크기가 작아졌는데, 이는 에도시대 후기 나타난 미의 개념인 이키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츠코우(先笄)는 여관의 두발형태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부유한 여성들에게 보급된 형태로 시마다마게와 고우가이마게가 융합된 형태이다. 마게의 형태는 아래로 처지고, 다보는 위로 끌어 올려 S자 형태의 머리형을 만들어 치켜 올린 다보와 아래로 처진 마게에서 울동감이 느껴지고, 다테의 미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장식은 같은 소재의 고우가이와 간자시 착용하여 장식성이 나타나는 머리 형태로 전체적으로 유사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여관의 두발형태의 조형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여관의 두발형태의 조형성

여관(女官)			
두발양식	형태 및 조형성		상징성
  	 	-고우가이마게(笄鬘), 궁중의 여관들이 사게가미(下髮)를 고우가이로 말아 올린 것으로 가타하즈시처럼 의례용 머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스타일 -초기의 형태는 고우가이 하나로 이루어진 간소한 장식과, 신분의 위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긴 다보(髷)가 전체적으로 단순성을 나타냄 -변용형은 다보가 짧아지고 마게(鬘)의 크기가 작아져 에도 시대 후기 이키(粹)의 취향을 드러냄	임의성 머리형태로 활동성과 신분상징 다보와 마게의 균형감
  		-사츠코우(先笄), 여관의 두발형태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부유한 여성들에게 보급된 두발형태로 시마다마게(島田鬘)와 고우가이마게가 융합된 형태 -마게의 형태는 아래로 처지고, 다보는 위로 끌어 올려 S자 형태의 머리형을 만들고, 장식은 같은 소재의 고우가이와 간자시 착용, 전체적으로 유사조화를 나타내고 있음	위로 치켜 올라간 다보와 아래로 처진 마게의 울동감 다테미

3.3 유녀

에도시대 여성의 머리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효고마게(兵庫髷), 시마다마게(島田髷), 가츠야마마게(勝山髷), 고우가이마게(笄髷)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고우가이마게를 제외한 세 가지 유형이 유녀의 머리형태의 기본이 되었으므로 에도시대 유녀들이 유행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계통에서 유녀들은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고, 이것은 당시 초년의 부인이나 무가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효고마게는 중국 여성의 마게(髷)와 유사한 가라와마게(唐輪髷)에서 발전했던 마게이다. 명칭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츠효고(摂津兵庫)의 유녀(遊女)의 머리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처음에는 유녀의 두발형태였지만 에도 중기 이후에는 일반 여성들에게도 유행했고, 에도말기에 다시 유녀의 머리로 사용되었으며 에도의 요시와라에서는 보력(宝暦)까지 유녀의 머리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도로빈요코효고(燈籠髷横兵庫)는 유녀 특유의 머리형으로 에도초기 효고마게를 변형시킨 것이다. 후기에 마게가 나비 날개처럼 양쪽으로 펼쳐진 형태가 되고 여기에 장식을 이용해 화려하게 꾸민 것으로 화려한 화장과 의복에 맞추어 유녀의 개성을 잘 나타낸 머리스타일 중 하나이다. 제일 고급유녀인 오이랑은 요코효고에는 열 개 정도의 비녀와 큰 빗을 꽂는데, 마게의 크기와 도로빈을 당기는 정도에 따라 균형을 이룬다.

하루노부후시마다(春信風島田)는 스즈키 하루노부(鈴木春信)가 그렸던 우키요에를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머리형이다. 하루노부 화풍에 나타난 유녀의 모습은 모두 야윈 스타일로 머리카락이나 손발이 극단적으로 가늘고, 버들잎처럼 가는 허리의 미인의 조심스러운 소극적인 색기가 에도의 남성을 매료시켰다. 이 머리형의 다보는 세키레이타보(鶺鴒髷)라 부르고, 깃에 닫지 않도록 다보자시를 꽂아 위로 올렸다. 두발에서 나타난 기교는 화가의 개성을 잘 나타내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도로빈시마다마게(燈籠髷島田髷)는 에도 중기 유녀들이 하던 것이 초년 여성들에게 보편화된 것으로 옆으로 팽팽히 당긴 빈과 둥근 마게 사이에 고우가이를 X자로 꽂아 좌우 균형의 조화미와 세련된 기품의 이키미가 엿보이는 머리 형태이다.

가무로시마다(禿島田)는 에도 요시와라의 신분이 높은 유녀를 따라다니는 가무로의 머리형이다. 마게의 뿌리를 높게 묶어 올리는 가무로시마다는 에도에서는 다카시마다(高島田)라고도 한다. 마게 속에 색이 다른 가노코로 만든 작은 쿠션을 넣어 하나칸자시(花簪)를 꽂아 어린이다움을 느낄 수 있는 유아미를 볼 수 있다.

가츠야마마게에 옆머리를 도로빈으로 하면 도로빈가츠야마마게가 되는데, 이것은 에도

중기 도로빈이 유행한 시기에 유녀들에게 유행한 두발형태로, 에도 중기 가늘고 연약한 유녀의 이미지를 화가들이 그림으로 표현하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우키요에 화가들에게 많이 그려진 스타일이다. 가늘고 긴 얼굴형과 높은 마게와는 대조적으로 수평적인 장식에서 조화미를 엿 볼 수 있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자연미가 느껴지는 머리형태이다.

<표 3>는 유녀의 두발형태의 조형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유녀의 두발형태의 조형성

유녀(遊女)			
두발양식	형태 및 조형성		상징성
		-초기 미소년들이 했던 와키슈마게(若衆髷)가 변화한 것으로 유녀로부터 시작한 것이 정인들에게도 유행 -머리카락을 꺾어 둥글게 마개를 만들고, 백색 모토유이로 묶음 -유녀들이 장식적인 면 보다는 기품 있는 모습 연출	길게 뺏은 다보와 마개의 수직 효과 우아미
		-스즈키하루노부(鈴春信)의 우키요에에서 그려진 두 발형태 -세키레이타보(鶴鵲髷)가 깃에 닫지 않도록 다보자시 꽃음 -화가의 기교와 개성이 엿보임	두발의 기교와 개성 통한 해학적인 분위기 신분상징
		-시마다마개의 일종 -옆으로 팽팽히 당긴 도로빈 형태 -앞머리는 당겨 올려 고우가이와 구시로 고정 -좌우 균형의 조화미	좌우균형의 조화미 와 세련된 기품의 이키미
		-가무로시마다 -가무로의 머리형 -마개의 뿌리를 높게 올려 묶는 방법으로 다카시마다(高島田)라고 함 -가노코로 만든 쿠션과 여러 개의 하나간자시를 꽃음 -어린이다움	어린이다운 장식과 마개표현에 의한 유아미
		-즈부시시마다 -시마다를 누른 납작한 형태 -마개를 낮게 묶은 형태로 후기형 -수직적인 높이를 강조하는 대신 수평적으로 머리 형태를 넓힌 형태 -길게 꽃은 고우가이와 마개의 크기에 맞춘 구시	마게변화를 통한 변형미 수평적 균형미 다테미

		-가츠아마마게 -중기 이후에는 고우가이를 사용한 머리 -초기 : 마게의 앞을 안쪽으로 접어 뿌리를 모토유이로 묶음 -중기 : 마게의 와가 납작하게 되고, 마게의 폭이 넓어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자연미 모방
		-도로빈가츠아마마게 -옆머리인 빈(鬢)을 만드는 가츠아마마게 -앞뒤로 4개씩 고우가이를 꽂고, 앞머리와 마게는 구시로 장식 -가늘고 긴 얼굴형과 높은 마게와는 대조적으로 수평적인 장식이 조화	장식 신분상징 과장
		-도로빈요코효고 -초기의 효고마게를 변형시킨 것 -중기에는 나비 날개를 펼친 모양에 고우가이, 구시, 간자시로 장식	과장

3.4 일반서민

일반서민인 초년의 머리 형태는 신분의 특성상 활동성과 개성을 나타낸 형태가 많았고, 신분상승의 욕구를 표현한 모방형의 두발형태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서민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적인 품위를 나타내는 두발형태와 서민적인 활동성을 나타내는 두발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네유이스이하츠는 공가나 무가의 예장용 머리인 수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초년들에게 있어서 수발형과 올림머리는 격식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마게를 만들지 않고, 모토유이를 이용해 하나로 묶은 간단한 형태로 에도초기 격식을 차리지 않는 초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동성을 강조하여 신분을 잘 표현해주는 두발형태이다.

젠로쿠시마다마게는 시마다쥬쿠의 유녀로부터 시작한 스타일로 마게는 흰색의 모토유이로 이분화시켜 둥글게 만든 형태이고, 초기형은 다보가 길게 돌출된 형태이다. 기존의 시마다마게를 기본으로 변화의 미와 우아미를 강조하고, 흰색의 모토유이는 강조의 효과를 꾀하고 있는 형태로 귀족과 유녀의 머리를 모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루노부후시마다는 초년 여성의 일상을 묘사한 하루노부의 작품에 등장하는 시마다 마게로 화가에 의해 표현된 형태임을 감안해 해학미가 드러나는 머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마게의

높이가 기존의 것보다 높아 활동적인 초년 여성의 자유로운 신분 특성을 강조하였고, 다보자시를 이용해 꺾어 올린 다보는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다른 곳 보다 두드러지고 돋보여 흥미를 끌만한 강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도로빈시마다마게는 도로빈과 시마다마게가 함께 구성된 머리 형태로 도로빈은 반원형의 옆머리를 만들고 여기에 구시로 장식한 시마다마게를 한 것이다. 도로빈에 의해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옆머리를 강조하고, 둥근 마게는 도로빈의 딱딱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간 부풀려 올린 앞머리는 의외성을 느끼게 하여 전체적으로 여성미와 이키미가 느껴지는 두발형태이다.

도로빈가츠야마마게는 도로빈에 가츠야마마게를 한 것으로 유녀의 두발형을 모방한 형태이며 장식성이 강조된 스타일이다. 수직적으로 강조된 마게와 길고 굵은 고우가이의 수평적인 효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것으로 모방미와 우아미가 표현된 두발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 4>은 초년의 두발형태의 조형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초년의 두발형태의 조형성

초년(町人)			
두발양식	형태 및 조형성		상징성
		-네유이스이하츠 -마게를 만들지 않고, 모토유이를 이용해 하나로 묶은 간단한 형태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동성을 강조하여 신분을 나타냄	활동성
		-겐로쿠시마다마게 -시마다쥬쿠의 유녀로부터 시작한 스타일로 마게는 흰색의 모토유이로 이분화시켜 둥글게 만든 형태이고, 초기형은 다보가 길게 돌출됨 -기존의 시마다마게를 기본으로 변화의 미와 우아미를 강조하고, 흰색의 모토유이는 강조의 효과를 보여 줌	모방
		-하루노부후시마다 -초년 여성의 일상을 묘사한 하루노부의 작품에 등장하는 시마다 마게 -마게의 높이가 기존의 것보다 높아 활동적인 초년 여성의 신분 특성 강조 -다보자시를 이용해 꺾어 올린 다보는 다른 곳 보다 두드러지고 돋보여 흥미를 끌만한 강조의 효과	개성

		-도로빈시마다마게 -도로빈은 반원형의 옆머리를 만드는 두발형태로 거기에 구시로 장식한 시마다마게를 한 것이 도로빈시 마다마게 -도로빈에 의해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머리형을 강조하고, 둥근마게는 도로빈의 딱딱함을 완화시키는 역할 -약간 부풀려 올린 앞머리는 의외성을 느끼게 함	여성미 이키미
		-도로빈가츠야마마게 -도로빈에 가츠야마마게를 한 두발형태로 유녀의 머리형을 모방해 다소 장식성이 강조된 스타일 -수직적으로 강조된 마게와 길고 굽은 고우가이의 수평적인 효과의 조화가 돋보임	모방 우아미
		-마루마게 -기혼여성의 머리형으로 연령에 따라 마게의 크기 다름	신분상징

4. 결론

근세 일본 여성의 신분별 두발형태와 조형성에 관해 고찰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가(公家)와 무가(武家)의 두발형태의 조형성을 고찰한 결과, 예장용 머리인 오스베라카시의 경우 수발형(垂髮形)으로 후두부(後頭部)쪽으로 길게 장방형(長方形)으로 길게 과장되었다. 그러나 전두부(前頭部)를 역삼각형의 사이시와 히라비타이로 장식해 정대칭의 형태로 안정감과 의례적인 느낌을 준다. 정면에서 보면 윗부분이 넓은 역삼각형 형태로 위로 세운 사이시(釵)와 히라비타이(平額)를 꽂고 뒤로 늘어뜨리는 형태로 장신구와 늘어뜨린 머리에 의해 수직적인 확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역삼각형 형태의 대칭균형을 이루어 수평적인 확장으로 과장된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 조형되어 안정감과 의례적인 느낌으로 주고, 귀족의 예장차림에 위엄과 권위를 더해주고 있다.

전체적인 조형적 특징은 단순미와 부드러운 질감미가 돋보인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인 흑발의 길고 풍성한 자연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수발의 변형된 형태인 사게미는 옆머리와 앞머리를 잘라 공가나 무가 미혼여성의 활동성과 기발한 취재를 보여주는

다테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용 머리의 경우, 장신구를 통해 검은 모발과 대비되는 화려한 색채미 뿐만 아니라 두발을 전두부, 후두부, 측두부 등에 부드러운 질감과 함께 다소 과장된 부피감이 나타났으며, 두상 부위별 형태에 따라 리듬감이 보이고, 활동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일상용 머리의 경우 두발을 전두부와 양측두부, 후두부의 4등분으로 구분지어 타보자시(髷挿), 간자시(簪)로 부풀려 부피감이 강조되어 다소 과장된 두발형태의 조형적 특징을 보였다. 즈부이치는 앞머리를 조금 부풀려 빗으로 고정하고, 마개를 등글게 올려붙여 전체 두발형태에 부피감을 강조하였다. 두발형태에 리듬감을 주어 공가의 미혼 여성의 활동성 강조하였으며, 장신구로 귀족여성의 품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타하즈시는 변화를 전제로 한 얇고 편평한 다보와 느슨하게 묶은 마개가귀족 여성의 활동성과 위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체를 넣어 부풀린 머리는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확장적머리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표현된 부피감은 귀족여성의 품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관(女官)의 두발형태의 조형성을 고찰한 결과, 지배계층의 예규에 따랐기 때문에 형태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으며, 다만 장신구를 통해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궁중의 예장용 머리인 수발(垂髮)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가나 무가계급 여성들의 화려한 올머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장식성이나 조형성에 있어서는 귀족 여성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유녀(遊女)의 두발형태의 조형성을 고찰한 결과, 시기별로 다테미와 이키미가 순차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가라와마게의 경우 앞머리를 짧게 자르고 곁을 만들어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의외성의 스타일을 잘 표현하고 있고, 중기에는 마게(髷), 다보(髷), 빈(髷)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조형되어 각각의 특징을 장신구를 통해 독특한 이미지의 다테미를 나타내었다. 후기로 갈수록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이키미가 잘 나타나고 있다.

도로빈요코호고(燈籠髷横兵庫)는 유녀 특유의 조형성이 잘 나타난 머리로 마개가 나비 날개처럼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 여기에 장식을 이용해 화려하게 꾸민 것이다. 화려한 화장과 의복에 맞추어 유녀의 개성을 잘 나타낸 머리스타일 중 하나로 마개의 크기와 도로빈을 당기는 정도에 따라 균형을 이룬다. 하루노부후시마다(春信風島田)는 하루노부 화풍에 나타난 유녀의 두발형태로 모두 야윈 스타일로 그려 과장적으로 치려올린 세키레이타보(鶴鶴髷)를 통해 화가의 기교와 개성이 엿보이는 해학적인 스타일이다. 도로빈시마다마게(燈籠髷島田髷)는 옆으로 팽팽히 당긴 빈과 둥근 마개 사이에 고우가이를 X자로 꽂아 좌우 균형의 조화미가 엿보이는 두발형태이다.

머리뿐만 아니라 장신구를 사용하여 경제력과 미적 감각을 표현했으며, 대체적으로 정대칭

(正對稱)이 보이며, 두발의 질감은 부드러우나, 머리 부분과 장신구의 과한 치장으로 인해 거친 질감이 나타났다.

넷째, 일반서민인 초년의 두발형태의 조형성을 고찰한 결과,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토유이(元結)로 고정했으며, 두발을 고정하는 위치가 두정부(頭貞部)인지 후두골(後頭骨)인지 또는 모토유이의 크기에 따라 품위 유무의 상징성이 부여되었다. 이로 볼 때 일반서민은 두발의 형태의 조형적 특징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일상생활에 편리성과 자연미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년은 신분의 특성상 활동성과 개성을 두발형태를 통해 나타내었고, 신분상승의 욕구가 귀족의 두발형태를 모방하면서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일반서민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적인 품위를 나타내는 두발형태와 서민적인 활동성을 나타내는 두발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이들 계층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무라사와 히로토 저·송태욱 옮김(2010) 『미인의 탄생』너머북스
 김문길(1998) 『일본 역사와 문화』형설출판사, p.200
 김민경(2009) 「정조시대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화장문화(化粧文化)와 수발문화(鬚髮文化)의 비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8 No.1
 조규화·이희승(2004) 『복식미학』수학사
 이자연역(2004) 『日本女性服飾史』경춘사
 조기여(2008) 「일본 에도시대 여성의 결발양식과 머리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2.no.1, pp.271-286
 李美林(2008) 「江戸時代 視覚文化와 美人大首繪」 『미술사학연구(구고고미술)』 Vol .No.260
 小池三枝(1989) 『日本服飾史』光生館, p.122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2) 『尾の文化史』ポーラ文化研究所
 _____(1986) 『モダン化粧史』ポーラ文化研究所
 村田孝子(2009) 『江戸300年の女性美-化粧と髪型』青幻社
 藤原千恵子(2008) 『浮世繪に見る江戸の一日』河出書房新社
 坂井博美(2003) 「丸髷姿の「新しい女」-遠藤清の經濟的獨立論」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第3分冊 49, pp.203-212
 鈴木昌子(1993) 「江戸時代の髪形:髪形の変遷にみられる日本人の美意識」 『山野研究紀要』1(1), pp.11-17
 _____(1998) 「燈籠髷の成立: 中国文化受容の江戸時代」 『山野研究紀要』6, pp.39-51
 _____(2001) 「日本における縮毛: 近世初期風俗画にみる美意識」 『山野研究紀要』9, pp.13-30
 _____(2005) 「日本における縮毛(II): 洛中洛外図屏風(舟木本)と江戸名所図屏風を中心に」 『山野研究紀要』13, pp.1-23
 村田孝子(2005) 「江戸のマキエな女たち-江戸時代の美女たちに見る化粧模様(美の時間軸-時とともにあるわたし)」 『化粧文化』(45)

早川義郎(2005) 「隨筆 美術史と事実認定-ラグーザ作「日本婦人像(島田髻)」はくめコンドル像か?」『公証』(143), pp.163-184

平出道雄(2001) 「21世紀につなぐ青森県の産業・文化江戸髪形文化の躍動に学ぶ本県理容・美容業」『月刊れちおん青森』23(276), pp.25-37

논문투고일	: 2011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0일

〈要旨〉

근세 일본 여성의 신분별 두발형태와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에도시대 신분별 여성의 두발형태에 나타난 조형성의 개념을 형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연구한 것이다.

에도시대 여성의 머리형태의 조형적인 특징은 전기에는 다보(髷)의 후두부 머리 다발을 정수리로 올려 빗어 묶은 후 빈(髷)의 양쪽에 걸친 머리 다발을 사선으로 비스듬히 빗겨 후두부 머리 다발 위로 함께 묶었다. 중기에는 후두부에 있는 머리다발인 다보가 두상에 달라 붙듯이 빗질되어 있고 옆머리인 빈(髷)에 부피감을 주어 목덜미와 어깨선에서 드러나는 곡선과 조화되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조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두발형태는 신분에 따라 나타나는 미의식과 상징성이 차이가 있었다. 공가나 무가의 경우 장신구와 스이하츠(垂髮)에 의해 권위나 위엄과 마게(髷)를 통한 신분 상징성이 나타났고, 여관(女官)의 경우 모방성과 임시성의 머리형태가 두드러졌다.

유녀(遊女)의 초기 두발형태인 가라와마게(唐輪髷)는 앞머리를 짧게 자르고 곁을 만들어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의외성의 스타일을 잘 표현하고 있고, 중기에는 마게, 다보, 빈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조형되어 각각의 특징을 장신구를 통해 독특한 이미지의 다테미를 나타내었다. 후기로 갈수록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이키미가 잘 나타나고 있다.

초닌은 신분의 특성상 활동성과 개성을 두발형태를 통해 나타내었고, 신분상승의 욕구가 귀족의 두발형태를 모방하면서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Exploration on Hairstyle of Modern Japanese Women and Their Figurative Qualities According to Social Standings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figurative qualities shown from hairstyle of Japanese women in the Edo period according to the irrespective social standings, by focusing on its formative aspects. What could be seen as figuratively characteristic in Japanese women's hairstyle of Edo period reveals two distinctive

phases of the tendency as follows:

There tends to be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s aesthetics and symbolicality women's hairstyle implies in parallel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ocial standings. In the case of *gong-ga*(公家) and *mu-ga*(武家), for example, their nobility and authority tend to be revealed via accessories and *suihatsu*(垂髮) and the increase in their social standings via *mage*(髷). From female public servants(女官) tend to be distinctively shown the duplicable and contingent qualities.

In the case of *yu-nyeo*(遊女), *karawamage*(唐輪髷) tends to describe well a unprecedentedly distinctive contingent style by cutting the frontal hair and giving it a twist in the former part of the Edo period.

In the middle period, *mage*, *dabo* and *bin*, all of which are shaped in different forms respectively, demonstrate unique image of *ditemi*(伊達美) by means of accessories. And there tends to emerge gradually *akimi*(粹美) that places an emphasis more on stylish beauty in the latter period. It is revealed that *chonin*(町人) as working class tend to emphasize the convenience and naturalness in the everyday life rather than the artificiality. Given their low social status in the then period, *chonin* showed their mobility and personality through hairstyle. And it is quite distinctive to see their desire to raise the social status emerge by imitating the hairstyle of the upper class.